

투데이 칼럼

장수 최초 국가사적, 동춘리 고분군

천 오백년 전 장수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고대 가야인들의 삶과 흔적들이 확인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장수구야에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확인된 장수구야의 유적과 유물은 그 진정한 가치가 규명된다면 한국의 고대사가 바뀔 정도로 그 역사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에 자리한 고궁 박물관에서 개최되었던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장수 동춘리 고분군에 대한 사적지정 최종심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장수 동춘리 고분군은 큰 이견 없이 국가사적으로 가결되었다.



최재원

장수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후 7월22일 문화재청은 동춘리 고분군에 대한 지정예고를 알렸다. 예고기간인 30일이 지나면 이번이 없는 한 장수군 최초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룬다.

장수동춘리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과정에는 많은 우여곡절과 그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 속이아기를 말해보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장수는 무진장 중의 하나로 산골이다. 역사적으로도 고대 백제의 변방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천오백년 전 장수의 모습은 앞선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2002년 겨울, 장수 마봉산 산줄기가 뒀던 내린 동춘마을 뒷산에도 유난히도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한다. 당시 문화재청의 의뢰로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던 군산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팀도 수북이 쌓인 눈으로 많은 고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날의 열정이 없었다면 지금의 동춘리 고분군은 없었을지 모른다. 소위 말하는 대박을 직감한 지표조사팀은 바로 군청으로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밝힐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당시

만해도 문화재보다 앞선 정책들로 인해 묵과되었다고 한다. 달리방법이 없어 문화재청 긴급 발굴비 공모를 통해 동춘리 고분군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 성과는 예상하듯이 엄청났다. 그동안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가야고분에서 확인된 유물과 비슷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를 통해 가야의 왕이 묻혔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이 동춘리 고분군의 역사성을 재차 확인시키는 데 역부족이었다.

십여년의 세월이 흘러 장수군에서도 지역문화에 관심을 두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5년 학예연구사를 채용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에 부응해 동춘리 고분군에 대한 발굴조사와 전수조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일 완에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중대형고분 87기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측량조사까지 완료했다.

발굴조사 성과를 통해 2016년 전은 고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문화재청의 의뢰로 지역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던 군산대학교 박물관 지표조사팀도 수북이 쌓인 눈으로 많은 고분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권이 바뀌며 국정과제에 초대받은 가야사 조사 및 준비는 그동안 가야사가 홀대에서 벗어나 역사의 한축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가야사가 초대받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동춘리 고분군에서 확인된 연구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정과제 포함이후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에서 국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장수 동춘리 고분군 28호분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고분의 주인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과 그동안 확인된 장수지역 가야무덤과는 다른 양식의 모습이 보여졌으며 장례문화가 간소화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에 국가사적 신청에 도전하여 약 8개월 만에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신청부터 지정까지는 8개월이란 기간이지만 동춘리 고분군이 알려진 이후부터라 한다면 약16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다.

동춘리 고분군의 국가사적지정은 학술적 성과뿐 아니라 여러 상호작용에 의해서이다. 특히 장수군에서 문화재를 사랑하는 민간단체인 장수구야 지킴이의 역할도 한몫했다.

가야지킴이들은 문화재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재로 인한 규제로 인한 고통보다 문화재 보존관리로 인한 혜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문화재로 지정하는데 지

역주민인 지킴이들이 앞장섰다. 동춘리 고분군은 무관심속에서 방치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유적지였지만 몇몇의 지속적 관심에서 시작되어 그 끈을 놓지 않아 국가사적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가야문화에 있어 장수구야의 위상을 드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음수사원 굴정지인(飲水原 掘井之人)이라는 말이 있다. 즉 물을 마실 때에는 그물의 근원을 생각하고 그 우물을 판 사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동춘리 고분군은 장수군의 역사에 있어 그 근원이 되는 중요 문화재로 그것을 지키기 보존하기 위해 소리 없이 노력한 사람들의 마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 동춘리 고분군 국가사적지정은 장수군 최초의 사적지정으로서의 의미가 크지만 사적지정을 위해 단합된 장수군민의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실이라 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는 동춘리 고분군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정비, 복원,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 중 80%가 국도비로 지원받는다. 타 시군 사례를 통해 약100억원의 국도비를 사실상 확보한 셈이다.

지원받은 예산으로는 유적지의 보존과 활용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유적지 경관정비, 무덤복원, 발굴조사 체험장, 유물전시관건립 등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한 미래를 준비하고 힘찬 장수를 맞이할 우리 군민들의 자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기고문

날씨가 더워지면서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도로 위에서 흔치 않게 목격되는 장면이 있다. 바로 반려동물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다.

반려동물 1천만가구 시대인 만큼 일부 사람들이 사이에서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여겨질 만큼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보니 잠깐 외출할 때나 드라이브를 할 때, 인근 나들이 할 때도 애완견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완견의 행동 때문에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해서는 안된다. 비록 애완견을 뒷좌석에 태웠더라도 운전석으로 뛰어

애완견 안고 운전 '위법'

들거나 갑자기 크게 짓는 행위로 인해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시야를 방해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애완견을 태우고 운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애완견은 차안이 덥거나, 공간이 좁아 상대적으로 차안을 답답하게 느끼고 있거나, 창문을 열었을 때 밖에서 나는 다양한 냄새를 맡기 위해서 창가로 다가가는데 운전이 집중하고 있는 운전자에게는 애완견의 이런 행위가 운전석으로 갑자기 뛰어드는



김덕진

전북경찰청 경찰관리과장

행동으로 여겨져 운전자의 운전예 방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애완견의 행동은 예측할 수 없어 운전 중 돌발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지에 넣는 것이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제39조5항)에 따르면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즉,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다.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끼고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끼고 애완견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사설

군산형 일자리 어찌돼가나

군산형 일자리가 어찌 돼 가는지 궁금하다. 군산이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지도 오래됐는데 여태 이렇다할 밝은 소식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물어보니까나 군산시민들은 마음이 타들어버릴 대로 타버렸을 터이다. 그런데도 정부 쪽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그대 군산 시민들의 입장을 쫓겨 전북도에 물어보는 것이다. 군산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여러차례 반복해 촉구했던 대로 군산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줘야겠다.

전북을 위해서 전북형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군산을 위해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하다. 지난날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조기 지원 약속이 있었지만 그게 뚜렷한 대책이라고 믿는 이는 별로 없었다. 군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기 지원은 그저 원론적인 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번에 군산형 일자리 추진 행보가 뚜렷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군산형 일자리의 규모를 확실하게 해두는 일이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 했던 말이 있다.매번 절실한 것은 손에 주어지는 돈이라는 말이 그것이다.전북도와 군산시는 군산 시민의 뜻에 부응해 군산 살리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믿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산의 경제 위기때문에 전북 경제가 함께 흔들린지 오래이니 말이다. 다시 강조해 당부하거니와 군산을 살려내기 위해 인간 힘을 써야겠다. 한시적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래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날 군산 경제가 거둬 쓰러질 때 발만 동동거렸을 뿐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제 것처럼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오래 전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 계획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군산과 구미와 대구가 구체적인 계획 대상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 발언의 행간을 심상하게 넘겨서는 안된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서 하는 말이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말 그대로 재류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기성세대, '청년 생생카드' 그대로 희망 보여줘야

전북도가 이번에 청년들을 위해 의미있는 행사를 가졌다. 도청 공영장에서 '청년생생카드' 발급 대상자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것이다. 그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도 함께 해 주먹을 들고서 사진 촬영을 했다. 도내 시군의 젊은 대표들이 카드를 본 판 대형 카드를 들고서 자신감과 패기를 보여주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또 다시 도내 기성세대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겠다. 전북을 떠나려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근거가 되어 달라는 당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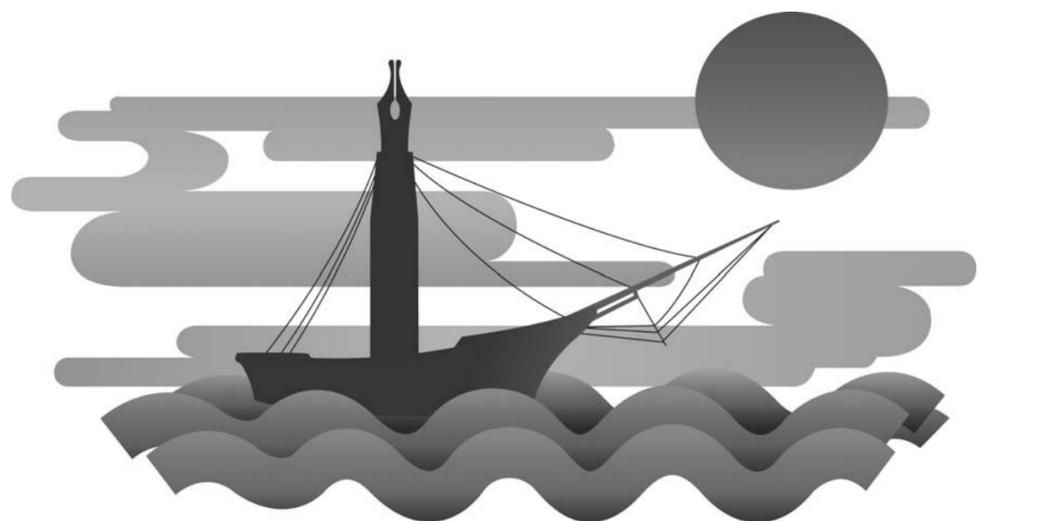
기성세대, '청년 생생카드' 그대로 희망 보여줘야

가 더 심각하다. 아예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자는 점차 취업할 희망이라도 있지만 취업을 포기한 이는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로 남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팬층은 일자리 창출을 전북도에게만 맡기지 말아야겠다. 팬층은 일자리 마련의 책임은 전북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공기업인들에게도 있고 일반 민간기업인들에게도 있다. 다들 진정성을 가지고 팬층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겠다. 기성세대는 눈을 똑바로 뜨고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럴려면 언론사들의 보도를 면밀히 읽는 가운데 젊은이들의 함께 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일자리 부족 때문에 여전히 탈전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관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더욱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겠다. 도내에는 여전히 열 명중 네 명꼴로 비경제 인구가 상존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얼핏 생각해 비경제 활동 인구를 두고 그게 무슨 고민거리냐고 말할 이도 있을 지 모르겠다. 일하기 싫어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된 게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할 것이 아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된 이들은 일반 실업자보다 문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 그래서 당부하는데 팬층은 일자리 만들기는 공감기 되는 수준이라야 한다. 기간제 일자리나 시간제 일자리는 결코 팬층은 일자리가 아니다. 기성세대는 도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미취업자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취업의지를 상실한 젊은이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달라는 부탁이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기성세대들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